

<2018년 3월 11일 주일말씀>

<자기 일터>로 가야 <자기 할 일>이 보인다

본 문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 오늘은 ‘할 일’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선생이 먼저 겪고, 행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합니다.

1. <일>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 <일터>로 가야 ‘할 일’이 보인다. 고로 항상 <일할 자>가 ‘일’을 찾아가야 된다.
2. <할 일>을 안 하면, 일들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할 일을 못 한 자에게 손해가 간다.
3. 저마다 매일 <할 일>을 찾아서 하여 <주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된다.
4. <자기의 일>은 ‘하나님’이니, <일>로 ‘하나님과 성령과 주’

와 교통하고 대화하며 성령과 주 안에서 행하여라.

5. <할 일>이 많고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고,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
6. <그리스도>는 ‘일의 머리’이니, 내게 물으라. 그리하면 말씀하리니, <그 일>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목적’을 두고 행해지리라. <그 일>은 ‘저마다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니라.
7. 저마다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해야 ‘형제를 위해, 삼위를 위해 할 일’도 생각한다. 고로 ‘할 일’이 생각나도록 간구하여라.
8. <죽은 자들>은 ‘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듯이, <심령이 죽은 자들>은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
9.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부활과 영광의 때>를 맞아 살았으니, <산 자>로서 ‘저마다 할 일’이 보인다.
10. <부활의 때>를 사는 사랑하는 자들아. 부지런히 하여라. 열심을 내어라. <네 할 일의 때>가 오고 가나니, ‘때’를 좇아 행하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며 매일 ‘할 일’과 함께 계시나니, <주와 일체 된 자>는 ‘그 일’을 행하게 되리라.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나, <영에 속한 자>는 ‘주’와 함께 행하나니 그것이 ‘영에 속해

행하는 것' 이니라.

11. <제때 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목적' 대로 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목적' 을 무너뜨리게 된다.
12. <일>은 '책에 속한 일' 을 하지 않으면, 전초의 일에 불과하다. 고로 '목적' 을 이루지는 못한다.
13. 오직 <주인>만이 '책의 일' 을 한다. 이는 '자기 것' 이라 알기 때문이다.
14. <옛 시대>는 '책의 역사' 가 이미 지나갔다. 고로 <옛 시대>는 '새 시대 책의 일' 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주관권' 도 아니다.
15. <주>를 '머리' 로 삼고 행한다 하나 '실제' 는 다르니, 이제는 '부활되어 산 자' 로서 다시 '주' 와 행하여라.
16. <옛것>은 이미 지나갔다. <시대의 일>을 행하여라. <지금 이 시대, 오늘 해야 될 새 일>을 하여라.
17.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오늘 해야 될 새 일' 이다. 그 일을 하는 자가 '할 일을 최고로 행하는 자' 이다.
18. 주가 너희에게 <새 일>을 말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새 일>이니라. 그 일은 곧 '머리 되는 주가 말씀한 일' 이며,

‘지체로서 자기 위치에 해당되는 일’ 이니라.

19. <시대의 목적>인 ‘사랑’ 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안에서 항상 호흡하듯 해야 된다. 이로써, 모두 ‘삼위의 사랑의 대상’ 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20. <기도의 일>을 꼭꼭 해야 된다. 이는 <시대 새 일, 자기 할 일>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자 함이며, <성령의 감동>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21. 모두 성령으로 행하여라. <성령>이 저마다 자신의 육을 쓰고 행하며 가르쳐 주시니, 늘 성령을 찾고 대화하며 자기 일을 고하여라.

22. 절대 ‘성령’ 을 잊고 살면 안 된다.

23. 자나 깨나 ‘성령과 함께’ 다.

24. <성령과 대화>다.

25. <성령께 자기 일을 고하기>다.

26. <생명을 관리하며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는 ‘시대 신부로서 항상 행할 일’ 이다.

27.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듯이 자신이 존재하는 한, <생명을 관

리하며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는 자신도, 생명도 항상 ‘생명권’에 살기 위함이다.

28. <더 좋은 사랑과 휴거의 부활>을 위하여 <영의 일>을 행하여라.

29. <성령과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는 것>이 곧 ‘영의 일’이다. 이같이 행하며 사는 자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더 좋은 부활과 휴거를 이룬 자’이다.

30. <휴거>가 무엇이나. <삶의 휴거>다. <더 좋은 사랑의 삶, 더 좋은 부활과 휴거의 삶을 사는 것>이다.

31. <머리를 중심으로 삼위와 일체 된 삶>이 곧 ‘육과 영의 휴거’이며 ‘삶의 휴거’다.

32.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모두 <더 좋은 휴거의 삶>을 살아라.

33. <차원>을 높여서 일을 해야 된다.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이다.

34. <신앙>이 죽으면 ‘사랑’도 끝나니, <신앙의 터전 위>에 ‘사랑’이다.

3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을 지켜 행함이 나 여호와와 일이니라.” 하셨다.

36. 〈믿지 않는 자〉는 ‘주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자’ 다.〈믿고 행하는 자〉는 ‘주와 생명의 길로 가는 자’ 다.

37. 〈네 육〉을 가지고 ‘영원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육’도 ‘영’도 형통하리라.

38. 〈지혜와 지식의 일〉이다.

39.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이시니, 누구든지 그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네게 말씀하시리라.

40.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임을 깨달아라. 그가 너를 권고하리로다. 성령으로 인도하리로다.

▶ <수요말씀용 잠언>

1. 여러 가지를 해 보면, ‘그중에 제일 좋은 것’ 을 알고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
2. 100% 해 보아야, ‘좋은 것’ 을 분별하게 된다.
3. 눈보라와 비바람이 치는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자기 기회의 행복의 때’ 는 오고 간다. 이를 분별하여라.
4. 매시간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하여라.
5. ‘선’ 과 ‘악’ 을 분별하고, ‘가인’ 과 ‘아벨’ 을 분별하여라.
6.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명은 다르다. 이를 분별하고, 알고 살아라.
7. 가인 쪽은 하나님이 알아서 행해 주시니 등 뒤에 놓고, 아벨 쪽을 걱정하면서 네 갈 길이나 가라.
8.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아벨을 중심한 역사임’ 을 분별하여라.
9. 과수원의 나무마다 ‘좋은 과일’ 도 있고, ‘안 좋은 과일’ 도 있고, ‘썩는 과일’ 도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좋은 과일’ 이

나 거두어들여라.

10. 거두어들일 때는 ‘하나님의 뜻’ 인지 분별하고 거두어라.

11. 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신경도 안 쓰는데, 모르니 걱정 근심하며 애를 태운다. 죽은 자는 놔두고, 주의 심정 맞춰 분별하고 행해라.

12. 분별은 ‘각종 방법론’ 이다.

13. 분별하려면, ‘파악’ 하라.

14. 분별하려면, ‘주’ 께 물어보아라.

15. 주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게 된다.

16. 지난날의 일들을 놓고, 어떻게 분별하였는지 사연들을 기억해보아라.

17. 항상 ‘주의 편’ 에 서서 살면, 특별한 다른 분별이 필요 없다.

18. 음식은 먹어 보면서 그 가치도 맛도 분별하듯이, 모든 만사의 일을 놓고도 겪어 보고, 행해 보면서 분별해야 된다.

19. 존재물을 분별할 때는 먼저 ‘전체의 모양과 형상’ 을 보고, 비교하며 분별하는 것이다.

- 20. 처음에 분별할 때, 호기심에 빠지지 말아라.
- 21.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분별하면, 온전하지 못하다.
- 22.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분별해야, 온전하다.
- 23. ‘마음’을 비우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분별해야 된다.